

쏟아진 취업정보 얻고 신기술 체험

동신대 29~30일 이틀간 '동신 EXPO 드림 페스티벌' 메타버스·가상현실 프로그램 전문가 특강·취업 박람회도

동신대학교가 AI와 실감미디어,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기술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관련 분야 유망 기업들의 취업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동신 EXPO'를 개최한다.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동신대 에너지클러스터 내 혁신융합캠퍼스에서 '2022 동신 EXPO 드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 1층에는 어드벤처존과 놀이존, 2층 통합임상존, 7층 메이커스페이스, 8층에는 메타버스존을 운영한다.

어드벤처존에서는 동신대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 전기자동차학과, 전기공학과, 사물인터넷학과, 정보보안학과, 신재생에너지학과, 컴퓨터공학과,

실감미디어사업단이 ▲AR/VR 체험 ▲AI지문 적성검사 ▲윈도우 해킹체험 ▲드론 시뮬레이션 ▲풍력에너지 코딩 ▲스마트 모빌리티 및 충전장치 체험 ▲3D펜 체험 등을 진행한다.

놀이존에는 작업치료학과와 '작업치료 플레이 캠프(Play Fun Camp)', 통합임상존에는 마음건강프로젝트 놀이치료, 우리동네 건강지킴이, 운동측정·운동처방, 한방건강상담 부스가 운영된다.

7층과 8층에서는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시설과 메타버스, 아두이노&3D프린터, 가상현실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2층 대강당과 세미나실, 6층 강의실에서는 세션별 전문가 특강이 진행된다.

특히 29일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에너지 분야 유망 산업체 취업 정보-미래산업'을 주제로, 30일에는 '도가(道家) 철학의 대가'인 최진석 서경대 명예교수가 '융합과 건너가기, 그리고 나'를 주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특강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사업 출범식, 지역상생을 위한 가족회사 협약식, 표준현장실습 학기제 협약식, 지역 산학협력 성장형신행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 캡스톤디자인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가 치러진다.

같은 기간 혁신융합캠퍼스 1층과 2층에서는 취업박람회 'JOB 스페이스'도 열린다.

동신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IPP사업단, 학생상담센터와 전남테크노파크, 나주시일자리지원센터의 홍보관을 설치하고 지역 기업 등이 참여하는 채용관, 직무관, 이벤트관, 기업 부스를 운영한다.

행사에 참석한 학생과 지역 주민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무선 헤드셋과 이어폰, 블루투스 스피커, 커피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동신대 이주희 총장은 "우리 대학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하고 구축한 미래 신산업 기술과 인프라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대학과 지역 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거점대학, 지역과 상생하는 공유대학교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신대는 국토교통부의 '2022년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에 선정돼 동신대 에너지클러스터 1·2층, 6·8층에 혁신융합캠퍼스를 구축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민주주의 역사현장 체험 연수

전국 시·도 민주교육 교사 초청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전국 시·도 민주시민교육 업무담당자를 초청해 민주주의 역사 현장 체험 연수를 실시했다.

〈사진〉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를 통해 전국 교원 대상 학생독립운동과 5·18민주화운동 직무연수를 홍보했다. 또 교육청별 민주주의 역사교육 추진 사업 공유를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연수는 학생독립운동 특강, 학생독립운동·5·18 사적지 답사, 시도교육청별 민주주의 역사체험, 민주시민교육 등 추진 사업 공유로 진행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제주4·3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민주주의 역사 교류를 대구·2·28민주운동, 부마민주항쟁 등 우리 지역의 민주주의 역사와 맥락적으로 연결되는 지역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광주 민주주의 역사의 전국화를 위해 전국 교원 대상 학생독립운동 및 5·18민주화운동교육 직무연수, 전국 학생 대상 5·18민주화운동교육, 5·18민주화운동 교육자료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한 민주주의 역사교육을 전국화에서 세계화로 그 범위와 영역을 넓혀 우리 학생들이 창의성과 따뜻한 가슴을 지닌 세계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립대 호남권 대학 최초 모바일 학생증 도입

전남도립대가 최근 재학생 개인정보 강화와 편리한 학사행정서비스를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산신원인증(Decentralized Identity) 기반 모바일 학생증'을 호남권 대학 최초로 도입했다.

이는 2022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선도기업사업 수행사인 ㈜가민정보시스템과 협업을 이룬 것이다.

신원정보를 분산 저장함으로써 기존 플라스틱 형태의 학생증보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학내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은 이름과 학과, 학번, 사진이 담긴 신원정보를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아 교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학생증 앱을 통한 정보무늬(QR코드) 스캔으로 학사 시스템을 간편하게 로그인하고 교내 주변 신원증명에도 편리하게 활용된다. 향후 교내 다른 인프라 서비스 인증에도 도입할 방침이다.

전남도립대 관계자는 "지역대학 최초 모바일 학생증 도입을 통해 학생 편의 증진과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했다"며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비대면 신원인증 서비스를 확대 발굴해 앞서가는 대학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호남대, 태국 까셋삿 대학교 기술교류 워크숍

호남대학교 AI융합인재양성사업단(단장 정영기)은 최근 태국 내 대학평가 1위의 까셋삿(Kasetsart)대학교를 방문해 AI자동차 글로벌 기술교류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진〉 미래자동차공학부(학부장 이정환) 손병래 교수와 학부생 4명은 글로벌 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태국 방콕의 까셋삿대학교에서 교수와 자동차공학과 학부생 15명 등과 함께 AI자동차 교육콘텐츠 공동 개발을 위한 글로벌 학생 교류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서 손병래 교수와 미래자동차공학부 아스팔트(ASPALT)동아리 학부생들은 전기자, 자작차 개발 과정과 대회 출전을 통한 보유

기술 및 노하우 등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까셋삿대학교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 교수와 학생들은 까셋삿대학교 시라차 공학부 설립 26주년 행사에도 참석했다.

손병래 교수는 "양 대학간의 이번 기술교류가 전기자 교육 도입을 준비하는 까셋삿대학에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 대학은 글로벌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5월 온라인 기술교류회를 한 차례 진행했으며, 제주에서 열린 '2022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에서 까셋삿대학 교수진들과 만나 미래 자동차 내연기관에 관한 특강과 함께 대회 차량에 대한 기술자문을 진행한 바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 '엔택트 퍼포먼스 VR콘텐츠' '광주 에이스 페어' 우수 프로젝트 선정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콘텐츠원캠퍼스 구축 사업을 통해 수행한 '엔택트 퍼포먼스 VR콘텐츠'가 2022 광주 에이스 페어(ACE Fair)에서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사진영상드론학과와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학생 20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엔택트 퍼포먼스 VR콘텐츠' 주제를 통해 가상 VR 고려극장과 AR 백범김구 사진관 등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콘텐츠원캠퍼스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융복합 콘텐츠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미래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광주대는 콘텐츠원캠퍼스 구축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AI와 빅데이터, 홀로그램, VR, AR 등의 실감형 콘텐츠 프로젝트 중심의 융복합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 사진영상드론학과 학생들이 콘텐츠원캠퍼스 구축 사업을 통해 수행한 프로젝트 제작을 위해 촬영하고 있다.

튼튼한 지킴이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